

◇ 本會主催 自然公園 學術세미나 參加記

日本國立公園協會 常務理事 大崎清見씨는 昨年 5月 雪嶽山國립공원의 설악호텔파크에서 개최한 본회 주최 제10회 자연공원 세미나에 일본 자연공원미화 관리재단 小久保恒夫 사무국장과 함께 招請演士로 參席했던 報告文形식의 글을 일본 국립공원지 482호(1990. 4月號)에 雪嶽洞에서 본 설악산풍경과 설악파크호텔 및 세미나광경 사진과 함께 실었다. 처음 우리나라에 왔던 大崎씨는 이글속에서 한국의 山林이 생각보다 아름답고 무성했다는 것과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제도가 일본보다 늦긴하나 여러나라의 長점을 본받아가는 듯한 인상, 관계공무원과 공단·단체 임직원이 열심히 연구하는 태도등에 깊은 감명을 받아 앞날이 밝다고 기술하고 우리협회는 물론 후원·협찬 관계기관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 日本國立公園協會 創立60周年記念特輯

日本國립공원협회의 창립은 1929년이다. 이는 이 나라의 국립공원법이 制定되기 2년전이며, 최초의 국립공원(세도나이끼이等 3개공원)이 指定되기 5年前의 일이다. 금년(平成2年)은 꼭 60주년이라 사람이면 還暦이된다. 同協會(會長 池ノ上容·理事長 大井道夫)는 지난 3月號(通卷 481號)를 178面의 特輯號로 發刊했다. 이 特집호에는 일본국립공원제도 도입의 선구자격이며 협회창립 常務理事였던 林學博士 田村 剛씨를 비롯한 關係官과 學者들의 무게있는 論文을 年代別로 再掲載했으며 1929년의 1號부터 479號(昨年 12月)까지의 總目次등을 실었다.

◇ 日本自然保護協會 消息

日本 자연보호협회(會長 沼田 真)는 최근 지난 4月號(通卷335號)부터 10月號(通卷341號) 까지를 本會에 보내주었다. 5月號에는 全國森林生態系保護地域의 設定案, 8月號에는 世界遺產條約의 早期批准을

指向하며, 10月號에는 長良川河口堰工事を 일단 中止하고 再調査하자는 日本自然保護協會의 建設省에 보낸 意見書등이 실려 왕성한 일본의 자연보호의 적극성을 감지케했다.

◇ 候鳥하이테크 追跡

飛行루트나 途中的 滞在地를 알수없기에 保護의 손을 뗀치기가 힘들었던 候鳥의 追跡調査가 日本의 하이테크技術로 놀라운 발전상을 보일정도에 이르렀다고. 日本自然保護協會 動物消息에 의하면 日本野鳥會등에서 人工衛星과 超小型電波送信機를 使用해서 실시한 「고하꾸쓰」(小白鳥·음역)의 追跡調査試驗이 성공했다는 事實이 지난 5月12일까지 사이에 확인되었다는 것.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게 됐다고.

◇ 田中郁子事務局長의 恪려親善書翰

본회 吳사무국장은 지난 10월초 일본의 태풍피해 안부와 함께 일본자연보호협회 田中郁子사무국장에게 귀중한 동회 회지를 많이 보내준데 대한 감사의 서신을 보냈는데 田中사무국장도 날로 심각해지는 地球環境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전직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협회 회원여러분의 활약을 빈다는 서신을 보내주었다.

◇ 高田 前秋田市長 快癒退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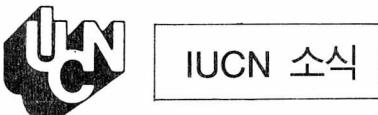
市 最高 功勞 표창

日本 秋田市長 재직중 본회에 자연보호와 도시공원등에 관한 자료와 한일친선의 의견을 교환, 성원해준 바 있던 高田景次씨(秋田市 寺内・根)가 지난 6월 재임중 건강악화로 사임, 그동안 두차례의 수술을 거쳐 기적적으로 快癒, 12月1日 退院했다는 소식. 또한 근 20년동안 秋田市政의 발전에 노고가 많았던 高田씨에게 同市서는 市政最高功勞者로서 市史上 세 사람째인 功勞表彰을 수여했다한다.

「公害病」 문제로 日 「責任局長」 自決 政府서 보상거부로, 公職者の 고뇌表現

有機水銀中毒에 의한 일본특유의 公害病인 「미나마다」 병의 총괄책임자인 환경청의 야마노우찌(山内豊徳·53) 기획조정국장이 지난 12월5일 하오 2시경 東京都 町田市 藥師合 1丁目 자택 2층서 목매 자살.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山内국장은 환경청내 미나마다병 문제의 책임자로서 이 병에 대한 公害소송에서 東京地方법원등이 原·被告 쌍방간의 화해를 권유해왔으나 피고측인 국가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것을 괴로워해 왔으며 유사환자(未認定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고 전해진다.

日本의 대표적인 공해병인 미나마다병의 소송과 관련, 불과 몇달동안 정부측의 칭구였던 山内국장의 돌연한 自殺은 이같은 국가측의 편협한 자세와 비참한 현실과의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 公職者の 「목숨



第18次 IUCN(國際自然保存聯盟) 總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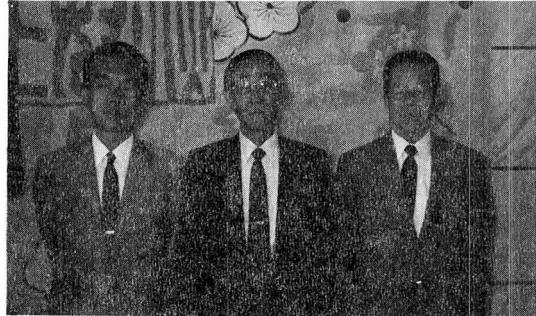
轉換期에 있어서의 保存

本會代表로 李和永대의원 參席

第18次 IUCN 總會가 11月28日부터 12月5日까지 西豪洲 PERTH市 BURSWOOD호텔 회의실에서 117개국, 700개 기관에서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轉換期에 있어서의 保存” 주제로 개최했다.

韓國에서는 本會 회장이 위촉한 李和永대의원(전 건설부국장·住公부사장)을 비롯하여 金熏洙박사(韓國自然保存協會長), 內務部 崔潤永 사무관(국민운동지원과 자연보호계장)을 비롯하여 김현식 서울市 새마을계장, 이규웅 경기도 자연보호계장, 이영현 대구시 자연보호계장, 강봉길 全南도 자연보호계장, 강홍석 경남도 자연보호계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총회에서 람팔(Shridath S.Ramphal·GYVANA人)경이 議長으로 선출되었고 國立公園 및 保存地域委員長에는 뉴질랜드의 Lucas씨가 선출되었으며 사무총장 Martin W.Holdgate씨는 유임됐다.

본회대표로 참석한 李和永대의원의 참관·기행문은 다음 회지 50호에 기고해 주기로 약속되었다.



▲ 89년 7월27일 제31회 일본자연공원대회(玄海國定公園)에 참석, 紀念寫眞을 촬영했던 故 山内豊徳씨(左端) 右는 일본 국립공원 협회 池ノ上 容會長, 가운데가 本會 文莊寅副會長

을 건 意思表示」로 각계서는 침통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인은 福岡태생으로 東京大法科를 나와 환경청 자연보호 국장으로 오랫동안 재직, 지난 7월 수석국장인 현직으로 옮겨 장차 사무차관을 바라보는 有能한 관료로서 韓日國際協力面에서도 특별한 성의를 보여왔다.

第4次 CNPPA(國立公園 및 保存地域委員會) 總會

IUCN본부에 의하면 10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국립공원대회인 다음 CNPPA총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日時 : 1992年 2月10日~21日

場所 : Venezuela Caracas

參席豫定人員 : 800~1,000名

議題 : 保護區域과 人間生存

- Major Protected Area Issues of the 1990s.
- The Contributions of Protected Areas to Sustaining Society.
- Expanding Partnership in Conservation.
- Protected Area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Concluding Plenary : Moving Ahadd to the 21st Century.

Workshops

- Building Partnerships for Conservation.
-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 Protected Areas in a Changing World.
- Enhancing Protected Area Management.